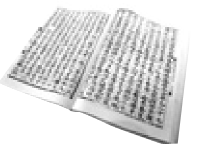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는 까닭은?

해리포터 능가하는 인물이야기

1. 우리 민족의 수트라

〈삼국유사〉(1281)는 우리 민족의 '수트라' 이자 '바이블' 이다. 이 서책이 우리 민족의 수트라라면 종교성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삼국유사 법회' 와 '삼국유사 미사' 및 '삼국유사 예배' 라도 열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널리 읽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각기 '불교문화사' (한국문학사) 혹은 '불교설화집' (한국불교사) 또는 '일반역사서' (한국일반사)로만 분절해 알고 있다. 〈삼국유사〉는 이들 세 가지의 개별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 혹은 경직된 정보망으로 인해 이 서지를 만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

〈삼국유사〉는 한국고대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다. 이것은 한국문명사를 집대성하고 있으며, 한국정신사를 거의 혼자 담당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 한국 고문서 20여 만종을 모아 불태운 적이 있다. 때문에 고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적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문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삼국유사〉 원문은 고사하고 번역본조차도 크게 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보와 인식틀 확립이라는 점에서 이 서지만큼 주요한 역사서도 없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자.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한 것에서부터 각종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과학사의 날줄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학사, 사학사, 철학사, 종교사, 예술사의 씨줄적 측면과 함께 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인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인간학이 인간의 본래성에 대한 연찬이라면, 고전학은 보편적 인간상에 대한 논구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거리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동시에 살아있는 것들의 생물학적 조건의 통일성을 탐구한다. 해서 인문학은 인간의 향기와 가치와 무늬가 스며있는 인간 본래의 바탕을 그려내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인간학과 고전학을 통섭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연찬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본디 '오래된 책' 인 고전(古典)은 무수한 시공 속에서 비판의 칼날을 견디고 살아남은 서물이다. 아울러 고전은 동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인 동시대성을 담지한 '새로운 책' 이다. 때문에 〈삼국유사〉는 '고전' 이자 '현대' 이며 '현대적 고전' 이자 '고전적 현대' 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는 까닭은 단순히 어제를 읽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된 미래' 를 읽기 위해 고전을 보는 것이다. 이 연재의 제목을 인문학 '유행' (遊行)이라고 붙인 것은 붓다의 마지막 유언에서 "자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라고 역설한 것처럼 우리 고전의 전도 유행을 떠나기 위함이다. 모든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전도 유행을 위해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볍고 편리한 것만이 널리 떠도는 시대에 고전학자들은 인간의 향기와 가치와 무늬를 지니고 있는 인문학 서물을 들고 전도의 유행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문학 '유행' 은 '유행' (流行)이 아니라 '유행' (遊行)이다. 때문에 우리의 인문학 '유행' (遊行)은 또렷한 사명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일연의 초발심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필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아시아센터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필자는 인각일연(麟角一然; 1206~1286) 선사의 〈삼국유사〉와 이를 모티프로 쓴 나의 시집 〈바람과 달빛 아래 흘러간 시: 시로 쓰는 삼국유사〉 그리고 〈원효전서〉와 〈퇴계전서〉를 가장 주요한 서지로 챙겨서 갔다. 필자는 연구년 내내 세계 동양학연구의 본산인 옌칭도서관과 한국학연구소 및 학부와 대학원 강의실을 오가며 〈삼국유사〉를 숙독하면서 몇 편의 논문들을 구상하고 다수의 시편들을 지을 수 있었다.

보스톤 웨이크필드 시의 문수사를 오가면서 〈삼국유사〉의 찬술자인 일연 선사가 출가한 진전사는 늘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전사는 필자가 출국 직전까지 BBS불교방송 IPTV 파워특강 〈고영섭의 한국불교사〉 강의를 하면서 201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신라승 무상' 의 나레이터가 돼 무상 선사의 일대기를 녹화한 곳이기도 했다. 일연의 은사이자 법사인 대웅(大雄) 장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곳은 그의 초발심이 이루어진(1219) 곳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곳이었다. 지금은 비록 삼층석탑과 빈 터 밖에 남지 않았지만 말이다.

근래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사천성의 대자사에서 무상 선사 국제학술대회와 무상 선사비 제막식에 참석한 이래 선종의 기린아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이 젊은 시절 신라 출신의 정중무상(淨衆無相; 684~762) 선사 밑에서 출가 수행한 제자였음이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불교학계에 공인되어 가고 있다. 한국 불교학계 역시 이 사실을 대중화시켜가는 즈음 중국의

일연 선사 영정

한국고대민족문화 백과사전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삼국유사〉
"고전은 무한한 시공 속에서
비판 견디고 살아남은 선물"

500나한 속에 무상 선사(455위)가 자리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그리고 정중무상에게서 공부했던 마조도일의 고족이었던 서당지장 · 남전보원 · 마곡보철 · 염관제안 · 장경회휘 등에게서 신라 칠산 선문의 개조 및 개산조들이 선법을 전해왔다.

해서 이곳 진전사에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며 한국 남종선의 요체를 전한 원적도의(元寂道義; ?~825) 국사의 맥이 스승인 서당지장 → 마조도일을 거슬러 올라가 무상 선사와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계종단이 공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봉암사의 '지증국사비문' 이 전하는 것처럼 훗날(875) 신라승 행적(行寂)과 현휘(玄暉)가 사천지역을 찾아가 무상과의 접점을 확인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더 주목받고 있다. 진전사는 도의 국사가 연 가지산문의 사찰로서 일연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이다.

3. 나를 찾아가는 유행

〈삼국유사〉는 한국인들의 꿈과 이상, 슬픔과 희망이 담긴 보물창고다. 나아가 우리의 민족문화를 온전히 담고 있는 '한국고대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다. 국사(國師, 國尊) 일연이 짓고 그의 입적 뒤 제자 무극혼구(無極混丘; 1250~1322)가 간행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까지 '유사' (遺事)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는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책이다. 그리하여 육당 최남선의 표현처럼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인의 모든 것을 '혼자 담당' 하고 있다.

진전사는 〈삼국유사〉의 찬술자인 일연 선사가 출가한 곳이다.

이처럼 〈삼국유사〉는 자아와 세계 및 인간과 자연과의 접점과 사이에서 절묘하게 꽃을 피워 내고 있다. 이 꽃은 여타의 역사서들이 피워 올린 꽃들과는 사뭇 다르다. 온갖 꽃들로 장엄하고 수식한 〈화엄경〉처럼 이 책은 드라마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소설이 지닌 이야기 구조처럼 〈삼국유사〉의 설화들은 서사의 재미를 지니고 있다. 이 재미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에 의해 그 외연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상상력은 다름 아닌 불교적 상상력이다. 하여 〈삼국유사〉는 우리시대의 화두인 문화콘텐츠의 보배창고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우리들 한겨레의 업경대(業鏡臺)로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삼국유사〉의 찬술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행히 20세기에 들어와 제5권의 권차에서 비로소 찬술자 일연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이 저술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삼국유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인식틀을 가장 넓게 드리우고 있는 텍스트로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의 보고로 확인되면서 부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켄터베리 이야기' 와 '로마인 이야기' 그리고 '해리포터 이야기' 를 능가하는 '인물이야기' (스토리텔링)가 있다고 자위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다고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겨우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종래의 우리 것은 뭔가 왜소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해 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이 높아지면서 점차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새롭게 하는 듯해서 가슴이 뿌듯해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문화의 정형 혹은 원형을 만들어내는 '씽크 탱크' 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전은 힘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는 고전 중의 고전이며 보고(寶庫) 중의 보고이다. 우리 모두 '나를 찾아가는 유행' 인 〈삼국유사〉의 세계에 들어가 보자.

그대의 얼굴을 생각만 해도/ 나 그대와 나란히 꿈속에 있고/ 그대의 이름을 불러만 봐도/ 나 그대와 더불어 자리해 있네// 나는 그대 앞에서 숨을 멈추고/ 너는 그대 옆에서 몸을 기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맘을 졸이고/ 그들은 그 뒤에서 쉬었다 가네// 환웅에서 고려까지 삼천 칠백년/ 단군에서 대한까지 사천 사백년/ 아, 그대는 우리의 길라잡이고/ 아, 그대는 우리의 대안사서代案史書니// 우리의 고대사를 혼자 받치고/ 우리의 정신사를 홀로 지키며/ 넓은 가슴 큰 마음 되비쳐주는/ 우리들 한겨레의 업경대業鏡臺이네.//(고영섭, 〈삼국유사〉 전문)

고영섭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으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